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한 우주 태양광

###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 스페이스X의 큰 그림, 100만 기와 100GW

- 스페이스X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신청서에 따르면 저궤도에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보스포럼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2028년까지 100GW의 태양광 캐파 구축을 선언
- 스페이스X의 'AI Sat Mini'는 개별 위성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위성형 데이터센터
- 현재 미국 모듈 캐파가 약 65GW임을 고려할 때 100GW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 다만 우주 데이터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인 우주 태양광은 밤낮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날씨의 영향도 없어 지구 태양광 대비 약5배 면적효율이 높다는 장점은 유효. 게다가 우주는 영하 270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로 자연 냉각이 가능

### 오라클(ORCL.US): FY27년 매출 가이드نس 유지, 자금조달 계획은 확대

#### 4QFY26년 클라우드 매출 +46% yoy, 가이드نس 부합, 시장 기대치 하회

- FY26년 4분기(5월 결산) 매출액 192억 달러로 YoY 21% 성장, 가이드نس 상단에 부합했으며, 조정 EPS 2.11 달러(+24%)는 예상치를 7% 상회. 일회성 투자이익을 제외하면 EPS는 2.03달러(+20%) 수준
- 클라우드 IaaS 매출은 AI 워크로드와 데이터베이스 수요 강세로 57.9억 달러(+93%)를 달성, 전분기(+81%) 대비 성장 속도를 높이며 시장 예상치(89%)를 상회했으나 SaaS 매출은 41.3억 달러 (+10%)로 전분기(+11%) 대비 소폭 둔화
- 전체 클라우드 매출액은 99.1억 달러(+47%)를 달성, 고정환율 (CC) 기준 성장 46%로 가이드نس 중앙값에 부합. 클라우드 성장이 전분기와 같이 가이드نس 상단 수준을 기대했으나 SaaS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 애플(AAPL.US): 애플 WWDC 2026, Gemini 기반 Siri AI와 AI 구독 수익화의 첫걸음

#### 구글 Gemini 협업 + Siri AI 공개

- 애플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Gemini 기술 기반 협업으로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 자체 LLM 단독 개발 노선에서 사실상 선회한 것
- 새 모델은 온디바이스와 Private Cloud Compute(애플도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자체 서버) 양쪽에서 구동. 최상위 기기 전용으로 음성 이해·생성까지 가능한 2차 온디바이스 모델도 별도 탑재
- 이를 기반으로 시리를 완전히 재구축한 Siri AI 공개. 개인 맥락 이해(사진·메시지·메일 검색), 화면 인식, App Actions(말로 앱 조작), 멀티턴 대화, 전용 Siri 앱(기기 간 대화 동기화) 지원
- Visual Intelligence가 카메라·맥·아이패드·비전프로 전 플랫폼으로 확장. 시스템 전반 자동 교정, 글쓰기 도구도 시리에 통합. 출시는 올해 하반기 베타. EU(iOS·iPadOS)와 중국은 규제 이슈로 초기 제외

## AI/플랫폼

### 엔비디아(NVDA.US): CPU 베라에 SK하이닉스 DRAM 탑재 확정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월 7일 서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곽노정 SK하이닉스 CEO, SK텔레콤 경영진과 만찬 회동 후 신형 베라(Vera) CPU에 SK하이닉스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직접 확인

### 아마존(AMZN.US): 자금 조달 확대

- 시티그룹 주관으로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HSBC, BofA 증권 등 주요 은행단으로부터 175억 달러 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대출 계약 이틀 전 발표된 140억 달러 규모 캐나다 채권 발행과 합쳐 48시간 만에 총 315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한 것

### 메타(META.US): 수백억 달러 규모 주식 발행 검토

- 파이낸셜타임스(FT)가 메타가 AI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 주식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메타 주가가 6월 5일 금요일 5% 이상 급락

### 앤스로픽(비상장): 페이블 5에 과잉 보수적 안전장치 적용

- 앤스로픽이 역대 가장 강력한 일반 공개 모델로 출시한 클로드 페이블 5가 고등학생 수준의 기초 생물학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이전 플래그십인 클로드 오피스 4.8로 질의를 넘기는 현상이 확인

### 오픈AI(비상장): 백악관, 정부 지분 출연으로 '공공자산펀드' 조성 논의

-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백악관이 정부의 오픈AI 지분 보유 방안을 두고 협상 중. 올트먼이 2025년 처음 트럼프 행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 1년 넘게 논의가 진행됐고, 이번 주 올트먼이 워싱턴에서 의원·관료들과 AI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어짐

## 우주/로봇

### 스페이스X(비상장): 구글과 컴퓨팅 계약

- 구글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월 9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엔비디아 GPU 약 11만 개와 CPU-메모리 등 관련 부품에 접근

### 퀀텀스페이스(비상장): 군용 기동 위성 스타트업 퀀텀 스페이스, 12억 달러 SPAC 합병으로 상장 추진

- 미 군용 고기동 우주선 개발 스타트업 퀀텀 스페이스가 상장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12억 달러 규모 합병을 통한 상장 계획을 발표. 우주 기반 정찰 비행체 개발을 위한 62억 달러 규모 안드로메다 계약에 선정된 상태로 2030년부터 시작되는 실제 자금 지원 임무의 태스크오더(개별 과업 발주) 수주가 관건

-

##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 우주 데이터센터를 위한 우주 태양광

#### 스페이스X의 큰 그림, 100만 기와 100GW

- 스페이스X의 FCC(연방통신위원회) 신청서에 따르면 저궤도에 최대 100만 기의 위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보스포럼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각각 2028년까지 100GW의 태양광 캐파 구축을 선언
- 스페이스X의 'AI Sat Mini'는 개별 위성에 대형 태양광 패널을 탑재한 위성형 데이터센터
- 현재 미국 모듈 캐파가 약 65GW임을 고려할 때 100GW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 다만 우주 데이터센터의 핵심 에너지원인 우주 태양광은 밤낮의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날씨의 영향도 없어 지구 태양광 대비 약5배 면적효율이 높다는 장점은 유효. 게다가 우주는 영하 270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로 자연 냉각이 가능

#### 페로브스카이트 탠덤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44%

- 로켓 무게는 90% 이상이 연료이기 때문에 구조체를 제외한 수하물의 무게 비중은 2~3%에 불과
- 우주태양광 발전(SBSP)에서 패널의 무게가 제조원가보다 중요한 이유
- 따라서 초경량을 강점으로 하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가 차세대 우주 태양광용 패널로 개발
- 저궤도에서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자가 치유가 가능한 화학적 특성 역시 강점
- 아직 페로브스카이트 단독으로 구성되지는 않으며 실리콘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한 탠덤 형태로 효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
- 이 경우 페로브스카이트가 단파장(자외선) 빛을 흡수하고 남은 장파장(적외선)을 마저 흡수해 이론적효율은 최대 약 45%까지 올라가. 기존 실리콘 대비 1.5배 수준

#### 6월 12일 상장 앞두고 페로브스카이트 비중국 원자재 공급망에 주목

- 2026년 6월 블룸버그는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 바스트로프에서 10GW 규모 태양광 셀 공장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
- 한국을 통해 비중국산(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을 공급받고 중국 장비를 사용할 예정
- 현재의 우주태양광 태양전지는 주로 갈륨비소(GaAs)가 사용되며 미국의 Spectrolab(보잉 자회사), SolarAero(로켓랩 자회사) 등에서 주도.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미 한국, 중국, 미국, 유럽, 일본 기업의 경쟁이 본격화. 열, 빛과 환경에 민감하고 균일한 도포가 어려운 페로브스카이트의 물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용화까지는 장기안정성과 대면적화의 달성 여부가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 미국 퍼스트솔라는 2027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 언급
- 폴리실리콘 Section 232, OBBBA PFE 조항, AD/CVD 최근 미국의 태양광 정책들이 결국 모두 비중국을 추구함을 고려할 때 페로브스카이트 역시 비중국 원자재 공급망의 상용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 6월 12일 스페이스X의 상장은 페로브스카이트의 양산 경쟁에도 촉매제가 될 것

## 오라클

## 상장 국가

미국

##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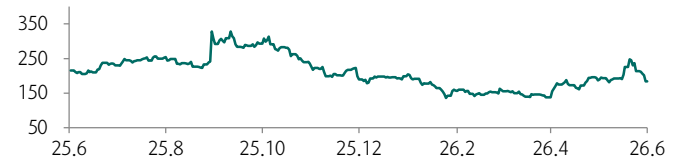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 시가총액(십억달러)

512

## 최근 주가 추이

(USD)



## 오라클(ORCL.US): FY27년 매출 가이드선 유지, 자금조달 계획은 확대

**4QFY26년 클라우드 매출 +46% yoy, 가이드선 부합, 시장 기대치 하회**

- FY26년 4분기(5월 결산) 매출액 192억 달러로 YoY 21% 성장, 가이드선 상단에 부합했으며, 조정 EPS 2.11 달러(+24%)는 예상치를 7% 상회. 일회성 투자이익을 제외하면 EPS는 2.03달러(+20%) 수준
- 클라우드 IaaS 매출은 AI 워크로드와 데이터베이스 수요 강세로 57.9억 달러(+93%)를 달성, 전분기(+81%) 대비 성장 속도를 높이며 시장 예상치(89%)를 상회했으나 SaaS 매출은 41.3억 달러 (+10%)로 전분기(+11%) 대비 소폭 둔화
- 전체 클라우드 매출액은 99.1억 달러(+47%)를 달성, 고정환율 (CC) 기준 성장 46%로 가이드선 중앙값에 부합. 클라우드 성장이 전분기와 같이 가이드선 상단 수준을 기대했으나 SaaS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전체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FY27년 Capex 현금지출 700억 달러, 자금조달 400억, 기존 계획대비 200억 추가**

- 4분기 AI 인프라 계약 670억 달러를 체결, RPO는 6,380억 달러로 YoY 356% 증가. RPO 중 12개월내 매출 인식 비중은 12%, 13~36개월내 비중은 34%. FY26년에 1.2GW 이상의 고객 용량을 인도했으며 FY27년 1분기 인도 물량은 1GW에 육박하며 인도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FY26년 Capex는 556억 달러(순현금 477억 달러, 선납금 & 파이낸싱 79억)로 가이드선(500억)을 상회. FY27년 Capex 가이드선은 900억~950억 달러(+66%)로 순현금 지출 700억, 고객 선납금 & 타이밍 영향 200~250억을 예상
- 자금조달은 FY27년에 약 400억 달러의 부채 & 주식발행 (기존 발표한 200억 달러 ATM 주식발행 포함)을 예상했으며, CY26년 중 기존 발표 대비 추가 부채 조달은 없다고 밝힘. CY2027년 1월~5월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약 200억 달러로 추정

**FY27년 매출 가이드선 유지, 매출과 이익 하반기에 성장 가속화 전망**

- FY27년 매출은 CC기준 34% 성장을 전망하며 기존 가이드선 900억 달러를 유지했다. FY27년 GPM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완전히 매출로 전환되기 전까지 램프업 타이밍과 믹스 영향으로 전년대비 하락이 예상. FY27년 1분기에 대해서는 매출 +27%~29%, 클라우드 매출 성장 58%~64%, 조정 EPS 1.72~1.76 달러(+17~20%)를 가이드선으로 제시
- 데이터센터 가동이 추가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하반기에 성장 가속화를 전망. 막대한 RPO를 바탕으로 향후 클라우드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기에 중장기적으로 주가 업사이드 높다는 기존 관점은 여전히 유효
- 그러나 1) 매출 전환 속도가 여전히 기대보다 느리고, 2) 레거시 부문과 SaaS 사업 관련 불확실성, 3) 대규모 자본지출 부담과 자본조달 영향 등이 여전히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고성장 기업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뚜렷한 'Beat & Raise'를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건으로 보임

## 애플

<b>상장 국가</b>	미국	<b>최근 주가 추이</b>	(USD) 400 300 200 100 0
<b>산업</b>	빅테크		25.6 25.8 25.10 25.12 26.2 26.4 26.6
<b>시가총액(십억달러)</b>	4,331		

## 애플(AAPL.US): 애플 WWDC 2026, Gemini 기반 Siri AI와 AI 구독 수익화의 첫걸음

**구글 Gemini 협업 + Siri AI 공개**

- 애플이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Gemini 기술 기반 협업으로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 자체 LLM 단독 개발 노선에서 사실상 선회한 것
- 새 모델은 온디바이스와 Private Cloud Compute(애플도 데이터를 볼 수 없는 자체 서버) 양쪽에서 구동. 최상위 기기 전용으로 음성 이해·생성까지 가능한 2차 온디바이스 모델도 별도 탑재
- 이를 기반으로 시리를 완전히 재구축한 Siri AI 공개. 개인 맥락 이해(사진·메시지·메일 검색), 화면 인식, App Actions(말로 앱 조작), 멀티턴 대화, 전용 Siri 앱(기기 간 대화 동기화) 지원
- Visual Intelligence가 카메라·맥·아이패드·비전프로 전 플랫폼으로 확장. 시스템 전반 자동 교정, 글쓰기 도구도 시리에 통합. 출시는 올해 하반기 베타. EU(iOS/iPadOS)와 중국은 규제 이슈로 초기 제외

**기본기 개선 중심의 OS 업데이트**

- 신기능 나열보다 속도·안성도 개선에 비중. 앱 실행 최대 30%, 사진 로딩 70%, AirDrop 전송 80% 빨라지고 아이패드-외장드라이브 파일 전송은 5배 개선
- CPU 스케줄러(칩 자원을 작업별로 배분하는 시스템) 최적화를 아이폰 11까지 소급 적용. iOS 27 지원 기기 범위가 역대 최대
- Liquid Glass 디자인은 가독성 보완 + 투명도 조절 슬라이더 추가로 개인화 강화. Spotlight·사진·메일의 검색 인덱스(기기 내 콘텐츠 목록)도 전면 재설계

**아동 보호 강화 + AI 구독 수익화 구조 첫 도입**

- 자녀 계정 중심으로 부모 통제 기능 대폭 확장. 새 웹사이트 접속 시 부모 승인을 받는 Ask to Browse, 앱 카테고리별 사용 시간 제한(Time Allowances), 미국소아과학회(AAP) 협업 기반 연령별 권장 기준 도입
- 커뮤니케이션 세이프티가 누드에 이어 폭력·유혈 콘텐츠까지 차단 범위 확대. 개발자용 연령 확인 API(Declared Age Range)도 제공
- 수익 측면 핵심은 이미지 생성 등 서버 기반 AI 기능에 일일 사용 한도를 두고, iCloud+ 구독 시 한도를 늘려주는 구조. AI를 서비스(구독) 매출로 연결하는 첫 시도

## AI/플랫폼

## 엔비디아(NVDA.US): CPU 베라에 SK하이닉스 DRAM 탑재 확정

-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월 7일 서울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노정 SK하이닉스 CEO, SK텔레콤 경영진과 만난 회동 후 신형 베라(Vera) CPU에 SK하이닉스 메모리를 탑재한다고 직접 확인
- "올해 SK하이닉스와 매우 큰 한 해를 보냈고, 하반기와 내년에는 훨씬 더 큰 규모를 준비 중"이라고 발언

## 아마존(AMZN.US): 자금 조달 확대

- 시티그룹 주관으로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HSBC, BofA 증권 등 주요 은행단으로부터 175억 달러 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대출 계약 이틀 전 발표된 140억 달러 규모 캐나다 채권 발행과 합쳐 48시간 만에 총 315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확보한 것
- 이번 대출은 딜레이드 드로 텀론(delayed draw term loan) 구조로, 전액을 일시에 인출하지 않고 아마존이 원하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어 집행 유연성을 확보한 형태

## 메타(META.US): 수백억 달러 규모 주식 발행 검토

- 파이낸셜타임스(FT)가 메타가 AI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 주식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메타 주가가 6월 5일 금요일 5% 이상 급락
- FT에 따르면 수전 리 CFO와 디나 파월 매코믹 사장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 주관 은행을 선정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 모든 자금 조달 옵션을 열어둔 상태이고, 메타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순전한 추측'이라고 일축

## 앤스로픽(비상장): 페이블 5에 과잉 보수적 안전장치 적용

- 앤스로픽이 역대 가장 강력한 일반 공개 모델로 출시한 클로드 페이블 5가 고등학생 수준의 기초 생물학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이전 플래그십인 클로드 오피스 4.8로 질의를 넘기는 현상이 확인
- 페이블 5는 사이버보안 역량이 너무 강력해 일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Mythos급 모델군의 첫 공개 버전
- 더 고성능인 클로드 미토스 5는 '프로젝트 글래스wing'을 통해 검증된 파트너에게만 제공. 생물학·화학·사이버보안·디스틸레이션(대형 모델 출력으로 소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법) 등 4개 민감 영역에서 안전 분류기가 작동해 요청을 차단하거나 오피스 4.8로 라우팅하는 구조

## 오픈AI(비상장): 백악관, 정부 지분 출연으로 '공공자산펀드' 조성 논의

-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백악관이 정부의 오픈AI 지분 보유 방안을 두고 협상 중. 올트먼이 2025년 처음 트럼프 행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후 1년 넘게 논의가 진행됐고, 이번 주 올트먼이 워싱턴에서 의원·관료들과 AI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어짐
- 구조의 핵심은 오픈AI가 지분을 매각이 아닌 기부 형태로 연방정부에 출연해 납세자 부담 없이 정부 보유분을 만드는 방식. 출연 지분은 오픈AI가 4월 정책 제안서에서 제시한 '공공자산펀드(Public Wealth Fund)'라는 국부펀드형 투자기구의 종자돈이 되는 구도이며, 해당 펀드는 분산된 장기 자산에 투자해 시민들이 AI 성장의 수익을 직접 배당 형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
- 트럼프 대통령도 에어포스원에서 "미국 국민이 사실상 파트너가 되도록 지분 일부가 제공되는 구상이 있다"며 논의를 직접 확인
- 또한 오픈AI는 6월 8일 월요일 SEC에 비공개 방식으로 IPO 서류를 제출

## 우주/로봇

## 스페이스X(비상장): 구글과 컴퓨팅 계약

- 구글은 2026년 10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월 9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엔비디아 GPU 약 11만 개와 CPU-메모리 등 관련 부품에 접근
- 구글의 계약 규모는 앤스로픽이 확보한 컴퓨트의 약 절반 수준으로 추정되고, 구글이 사용할 데이터센터는 미공개이나 머스크 CEO가 콜로서스 2는 xAI용으로 남겨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상황
- 또한 일론 머스크 CEO는 ASML의 비공개 기술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테라팜(Terafab)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며, ASML은 이를 '진지한 사업(serious endeavor)'으로 평가

## 퀀텀스페이스(비상장): 군용 기동 위성 스타트업 퀀텀 스페이스, 12억 달러 SPAC 합병으로 상장 추진

- 미 군용 고기동 우주선 개발 스타트업 퀀텀 스페이스가 상장 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12억 달러 규모 합병을 통한 상장 계획을 발표. 우주 기반 정찰 비행체 개발을 위한 62억 달러 규모 안드로메다 계약에 선정된 상태로 2030년부터 시작되는 실제 자금 지원 임무의 태스크오더(개별 과업 발주) 수주가 관건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6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